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소선지서 강해
-요엘서-

다른 신은 없다

(요엘 2장 18 - 27)



제 2 계명은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으로 섬기는 다른 것들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 백성(my people)”이라고 하십니다.

1. 여호와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도다” (27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노아와 다윗에게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삭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려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1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 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이며 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시고 처음도 끝도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우리는 타율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롬 8:28).

우리의 모든 일을 합하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함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고난은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지금, 지난날을 돌아보면 모든 풍량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과 노예와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불신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려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2.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복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19절)

여호와에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은 물질적인 변영을 주십니다. 우리가 물질의 변영을 누릴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바친바 되었다고 하면서 끌리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신자가 하는 행동입니다.

율과 아브라함과 다윗은 모두 큰 부자였으며 동시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복종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행해야 할 바입니다.

물질의 변영은 인간의 힘이 되고 가능성이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 물질을 힘으로 삼는 불경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였다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단 4:30-31).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거두어갔습니다. 그는 그 일이 있은 후 7년 동안 몸을 병에 걸려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때이며, 높아지는 때 가장 조심해야 할 시간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일을 행 하였음이니라” (20절).

하나님께는 당신에게 돌아온 자들에게 국가의 안녕을 주십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통일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자가 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 주권자인 하나님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로 하여금 아시아의 제사장적 국가가 되도록 하며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행자지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큰 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누치고 황충과 팔중이가 먹은 햇수로 너희에게 갚아 주리니” (25절).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 과거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자에게 잃어버린 기회도 다시 주시며 새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3절).

하나님은 때와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십니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도다” (24절).

예전에 약속하신 것은 물론이거니와 새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눈에 보인다

독일 클라이스 오르간 회사와 우리교회는 2000년 7월 25일에 57stop의 파이프 오르간을 주문 제작하여 납품할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현재 세부적인 공사실무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부품공사가 완료되어 현지에서 모든 부품을 맞추어 보는 작업에 들어가 있다. 악기 완제품 수송은 3월 또는 4월경 쯤 될 것이며 따라서 설치는 5월초 쯤 시작할 것

으로 계획되어 있다. 설치와 조율기간을 3개월 정도로 잡고 8월말 또는 9월초에 오르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악기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파이프 오르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그날을 성도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찬양 감독직 신설하다 - 초대 감독에 백효죽 장로 초빙 -

당회는 우리교회 모든 찬양대와 찬양을 지도할 찬양 감독직을 신설하고 교회음악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로 했다. 초대 찬양 감독으로는 백효죽 장로가 청빙되었다. 백교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휘하게 된다.

백 감독은 연세대 종교음악과 UCLA 음악석사(지휘전공), 클레어먼트 대 음악박사(지휘전공) 학위를 받았으며 남가주 장로회 신대에서 신학수업을 받고 영국 Royal Collage of Music,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대학에서 지휘법을 연구하였다. LA 필하모닉, LA 챔버 오케스트라, 시카고 Lakeshore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0회 메시아 대

연주회 등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약한 바 있다. 연세대 추최 전국 음악경연대회 대상(합창지휘)을 받는 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번역 출판했고 현재 서울 사립합창단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그리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평북 신의주에서 유아세례 후 서울 영락교회에서 입교, LA 영락교회에서 안수받은 장로다. 영락, 새문안, LA영락 등에서 찬양대를 지휘했다. 가족은 부인 이영자 권사와 1남 1녀가 있다.

찬양대원 양성반 신설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찬양대원 주중연습과 성경대학내 음악교실 운영만으로는 찬양대원 양성에 부족함이 많아 주일에 찬양대원 양성반을 개설 운영하여 찬양대의 수준을 높이는 한편 찬양대로 봉사하기를 원하는 이는 찬양대원 양성반에 등록하여 기본 교육을 받도록 하여 항상 찬양대원 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찬양대원 양성반 지도는 박정선 집사가 하게 된다.

새가족 환영의 시간

우리교회는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작년 12월과 1월중 등록한 새가족을 환영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늘 교회와 성도 앞에 소개되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서울교회 성도들로 성장하도록 기도한다. 새가족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기속 고영순 고영신 권보라 권은정 권일선 권태대 김경남 김경현 김규현 김금매 김미경 김미영 김민정 김민진 김선혜 김선화 김성숙 김성희 김순례 김신영 김영자 김영자 김유나 김윤석 김인영 김정자 김주성 김진희 김철욱 김희재 나영숙 남재은 박근철 박나래 박동수 박성수 박이선 박정명 박종실 박준영 박진경 박찬성 배효옥 백병철 백혜진 변영실 변지연 서강숙 서정애 선순례 성윤진 송재현 송충엽 신광식 신세영 신종건 신태리 심명숙 심명자 안명덕 안성환 안승민 안지혜 안현진 양수영 양순정 양원호 양정훈 어영선 어은숙 어혜림 오현경 오현석 용성렬 위외숙 윤석천 윤영미 이경선 이경수 이나래 이누리 이도훈 이동환 이민음 이봉임 이상은 이상철 이연구 이영재 이영혜 이용홀 이원주 이윤옥 이인우 이재명 이정우 이정옥 이정은 이정자 이주호 이춘자 이혜미 이호자 이희정 임대중 장미옥 장준옥 전기우 정선영 정용운 정태신 조민희 조영미 조인주 조행진 조희경 진경자 천애영 최머리내 최선화 최승필 최안자 최우정 최원호 최정근 최지이 최창수 한 옥 흥영미 홍지은 황윤정 Rebecca Jane, Andres Alvarez, Victor Alvarez, Hilmer Lozano 이상 136명

농어촌100교회 결연 현황(2월2일 현재)

94	참빛 교회	김상수 목사	사라전도회
95	평강교회	김금동 목사	사라전도회
96	승원교회	김종권 목사	김영주 · 이해순
97	신월교회	안근기 목사	박정섭 · 고광미

금주의 성구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시85:10-13)

Love and faithfulness meet together; righteousness and peace kiss each other. Faithfulness springs forth from the earth, and righteousness looks down from heaven. The LORD will indeed give what is good, and our land will yield its harvest. Righteousness goes before him and prepares the way for his steps. (NIV Psalm 85:10-13)

70인 전도대 활동영역을 넓히다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활동을 펼쳐-

우리교회 노방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70인 전도대가 전도활동 영역을 넓혀 매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도활동을 펼친다.

수요일에는 오후 2시에 각 교구가 주력이 되어 104호에 모여 전도준비를 한 뒤 활동하며,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 각 선교회가 주력이 되어 104호에 모여 전도준비를 한 후에 활동을 펼친다. 그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오전 11시에 403호에 모여 기도하고 전도물품을 준비하여 담당구역으로 나가 축호전도를 펼친다. 또한 70인 전도대 홈페이지 (<http://cafe.godpeople.com/70mission/>)도 개설하여 항상 컴퓨터를 통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여 70인 전도대의 활기찬 행보가 주목된다.

대학부 겨울 수련회

2월10일(월)~12일(수)

우리교회 대학부 겨울수련회가 2월10일(월)부터 12일(수)까지 경기도 가평 소재 승동 기도원에서 열린다. 강사로는 이준용 목사와 박귀환 목사 두 분이 서게 되며 회비는 25,000원이다. 준비물로 은혜 받고자 기도하는 마음과 성경찬송가, 필기구,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면 된다. 출발시간은 교회에서 1차 10일 오전 10시30분, 2차 오후 8시 두 번이다. 많은 대학부 회원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한다.

어린이 수요일예배 2월 성경공부 안내

매주 수요일 5시 603호

어린이 수요일예배 2월 성경공부 주제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다. 학부모와 교사들은 일정에 맞게 학생들을 지도하기 바란다.

2월5일: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준비물: 두꺼운 종이, 가위, 테이프, 색연필, 싸인펜, 털실, 연필, 지우개, 실핀, 천조각

2월12일: "가인과 아벨"

준비물: 두꺼운 종이, 가위, 테이프, 색연필, 싸인펜, 털실, 연필, 지우개, 실핀, 천조각

2월19일: "새로운 아들 셋"

준비물: 찰흙, 지점토(종이찰흙)

2월26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죄"

준비물: 흰색, 검정색 바둑알, 종이, 연필, 지우개, 주머니(나의 죄 짐 보따리)

서울교회 창립 때부터 성도들과 교락을 같이 한 조대영 전도사, 그 때는 초등부 교사이던 조 전도사님은 이제 어엿이 교역자가 되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을 돕고자 여상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던 중 어머니의 권유로 다시 학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도 학비 격정으로 경원전대 전산학과에 입학했다가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 산업대를 장학생으로 편입하였다. 이어 한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등 향학열을 불태웠다.

이후 반원초등학교에서 컴퓨터를 가르치다가 당시 서울교회가 논현동에 있을 당시 전도를 목적으로 논현 초등학교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초등부에서 봉사하며 조 전도사님은 특히 어린이 영혼 구원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특히 지식만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 또한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교역자란 자신과는 먼 길로만 생각했었다.

조 전도사님은 학교를 채 졸업하기도 전부터 10년이 넘도록 학교와 직장을 오가며 쉼 없는 생활을 했다. 특히 학교에서 일주일에 30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공부를 무리하게 몰아치다가 급기야는 후두에 염증이 생겨

교역자 가정을 찾아서 (조대영 전도사님 가정편)



본의 아니게 휴식기를 갖게 되었다. 조 전도사님은 이 때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돌아보니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해 준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그 때 조 전도사님은 자친 육신을 추스리고 한편으로는 신대원에 진학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였다. 조 전도사님은 혼기를 훨씬 넘기고도 공부를 하면서 교역자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묵묵히 자신을 바라보며 믿어준 가족들, 특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감사한다.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한 조 전도사님은 지금 장신대 대학원 기독교 교육학과에 재학 중이다. 그가 신대원을 졸업

하고 교육학을 공부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어린이 목회와 장애인 사역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서울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크게 감사한다. 이것은 서울교회가 자신의 모 교회일 뿐 아니라 가까이에서 이종운 목사님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목사님의 학문적 깊이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거니와 철저하게 말씀에 입각한 목회 방침과 한결같은 사랑으로 성도를 양육하시고 후학을 기르시는 목사님을 보면 존경스럽다 못해 놀라울 뿐이란다.

올해 준 전임 교역자로 청빙을 받아 유년부를 지도하는 조 전도사님의 요즘 관심사는 오직 유년부 뿐이다. 유년부에 대한 그의 첫 인상은 잘 준비된 교사들이 누군가 동기를 부여만 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것만 같이 느꼈다고 한다. 부장 이하 모든 교사들의 열성이 어찌나 대단한지 요즘은 축구 전에도 온 정성을 쏟고 있단다. 덕분에 유년부가 나날이 부흥하고 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시 146:1-2).

가장 사랑하는 성경구절, 조 전도사님은 자신도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기도한다.

허숙(편집부)

신혼가정부 수련회를 다녀와서

왕재용 성도(11교구)

지난 송구영신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대로 ‘금년에’ 하나님은 내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며 열매 맺기 원하심을 믿고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심은 또다시 ‘일상’이라는 틀 속에서 행함을 놓치 못하며 하루하루를 지내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와 우리 가정을 부르셔서 약속의 말씀으로 힘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믿음과 교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다. 신혼 가정부 여덟 가정과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참여한 1박 2일의 수련회 일정은 예배와 성경공부, 부부탐구와 영화감상 등으로 진행되면서 은혜롭고 복된 시간들로 채워져 갔다.

신혼 가정부는 이제 갓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아 새로운 역할과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빛과 소금으로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 나가기로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는 하나 됨의 새로운 부르심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을 접하고 또 그 가운데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소망대로 지내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어려움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생활을 통해 우리의 죄성과 우리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음을 더 깊이 깨우쳐 주신다. 따라서 성령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한없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쉽게 무너져 가는 세상 가정들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솔직한 나와 우리의 고백인 것이다.

수련회 일정 가운데 성경공부와 부부탐구의 시간은 부부간에 그동안 소원했던 관계를 점검하고 서로가 하나 됨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깨달은 시간이었다. 우리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파묻혀 무관심했고 이해해 주지 못했으며 따뜻한 격려나 위로, 칭찬과 감사의 말을 서로에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 혼자서는 부족한 존재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하나로 부르신 전하신 목적을 기억하면



서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 이해와 용납함을 아낌없이 주며 살아야 할 것을 새로이 결심하였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의 가정을 ‘복의 근원’, ‘복덩어리’로 부르셨다고 말씀해 주셨다.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 할 때 우리는 그분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고 누릴 뿐만 아니라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의 삶과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는 타락한 세상 가정의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짧은 일정의 최적의 장소인 ‘베델하우스’를 허락해 주신 장로님과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몸된 서울 교회 신혼 가정부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과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한 영광 받아 주신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중등부 수련회를 마치고

주은빈(중1)

중등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겨울 수련회를 맞게 되었다. 처음에는 학원을 핑계대로 안 가려고 했으나 이 마음을 끊어버리고 겨울 수련회에 참석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된다.

금요 철야 기도회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 교회, 우리가족에 대해서 기도를 하며 앞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성경도 소리를 내며 읽으니 그냥 눈으로 읽는 것보다 즐리지도 않고 이해도 더욱 잘돼서 좋았다. 공과공부 시간에 성경을 읽고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며 식사기도외에도 밤이나 낮에도 기도를 해야 함을 알았고 금요 철야예배 때 오정식 목사님 말씀처럼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먹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겠다.

모든 수련회 행사에 다 참석하지 못해 너무나 아쉽다. 하지만 여름수련회는 꼭 참석하도록 하겠다. 또 앞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릴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야겠다.

한성연(중1)

오늘 겨울 수련회가 끝났다.

2박 3일 동안 많은 것을 배웠다. 우리 서울교회는 축복 받은 교회이다. 은혜로운 예배와 많은 기도를 드리며 찬양했다. 언제나 수고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선생님들과 우리가 깊은 은혜 받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윤영국 목사님.

시간은 금이다. 시간을 헛되게 절대 보내지 말라고 당부하시던 오정식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공부해서 내가 잘되고 그냥 돈 많이 벌고 세상을 사는 줄만 알았다. 그러나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나의 올바른 생활임을 알게 되었다.

금요 철야기도회에서 오정식 목사님은 신포도는 무엇이고 단포도는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다. 수련회 동안 열심히 집중했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을 적고 또 적었다. 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설교말씀을 적었다.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은혜로운 2박3일간의 수련회였다.

순례자신문 테마 기획 (3)

요가는 사탄의 도구다!

오정식 목사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 접속하니 광고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요가다이어트에 대한 광고다. 다이어트는 이 시대 최고의 화두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요가를 통해 살을 빼는 것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모델출신의 연예인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요가를 통해 살을 빼게 해준다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이어트 뿐만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요가 열풍이 불고 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요가 수련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방송국이나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에 건강과 정신수련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요가와 기공, 국선도 등이 인기강좌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요가는 사탄의 도구다.

요가는 뉴 에이지 운동(New age movement)과 뿔레야 뿔수 없는 관계에 있다. 뉴 에이지 운동이 무엇인가?

뉴 에이지 운동은 서구사상(西歐思想)에 동양적 비교주의(東洋의 秘敎主意) 사상을 혼합(混合)시키고, 이에 점성술(占星術)까지 동원하는 신비적 혼합주의(神祕的 混合主意)이다. 또한 뉴 에이지 운동은 동양과 서양의 다양한 신비사상을 혼합하여 '과학'이라는 옷을 입힌 "현대판 신화 운동(現代版 神話運動)"이라고도 한다. 뉴 에이지 운동에 대한 다양한 설명들 속에 내포된 공통적인 개념은 뉴 에이

지 운동이 서구문명과 동양신비종교와의 만남으로부터 접촉점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다. 또한, 힌두교의 브라만(Brahman, 신)과 아트만(Atman, 자아) 사상을 차용하는 뉴 에이지 운동은 요가와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윤회와 환생으로 거듭되는 카르마(Karma, 업(業))의 공작을 차단하고, 범아일여(梵我一如)의 해탈 경지를 모든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목표로 삼는다.

한마디로 뉴 에이지 운동에 있어서 인간은 곧 신이다. 인간에게는 신성의 씨앗(쿤달리니)이 있다. 그 신성의 씨앗이 요가와 명상 등을 통하여 개발이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초월적인 존재를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요가와 명상 등의 수행을 통해 스스로가 신이 되는 것이다.

요가를 통해서 수행자들은 각성된 신성의 씨앗(쿤달리니)의 에너지가 최고의 우주의식 브라만의 합일에 도달하게 된다. 즉, 아트만(자아)과 브라만(신) 즉 개인의식과 우주의식간의 결합이야말로 '요가'라고 규정지어진 체계를 몸소 실천하는 수행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인 것이다.

'자유를 위한 변명'의 저자이며 전위무용가인 홍신자(인도의 명상가 오소 라즈니쉬의 제자)는 자신의 책에서 자신이 무대 위에서 전위적 표현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신(神)'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는 춤의 소리를 듣는다. 그것은 이 몸을 통하여 오는 신의 소리이다. 나는 사라지고 신의 소리가 흐르는 것이다. 나의 팔이 올라가고 있지만, 내가 그것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의 움직임에 지배하지 않는다. 신이 그 움직임을 지배하도록 나는 다만 그 신을 불러들일 뿐이다. 신이 내 속으로 들어온다. 마침내 나는 신이 되는 것이다. 신의 소리는 다시 멀리 퍼진다. 바람처럼 파도처럼 에너지로서 흔적도 없이 그렇게 사라진다. 춤추는 자는 사라지고 춤만이 남는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이 순간, 바로 신의 순간이 아닌가."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일 수 없다. 아무리 어려운 자세로 아무리 오랫동안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고 수련을 한다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한 신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요가와 명상을 통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흠을 벗어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 그릇이 어느 날 스스로 몸을 구부러더니 시간이 지나 인간이 되었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인간은 죄의 늪지대에 빠져있는 불쌍한 존재다.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지는 것이 죄악의 수렁이다. 요가를 한다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는 없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고'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행4:12)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선포하고 있다.

요가는 그저 조금 어려운 몸동작으로 부위별로 살을 빼는 운동이 아니다. 요가는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인 뉴 에이지 운동이 선택한 구체적인 실천도구요, 전파도구인 것이다. 건강과 다이어트의 가면을 쓰고 우리들 가까이 다가온 사탄의 도구를 믿음의 눈을 크게 떠서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이다.

일고 계십니까? 비전 2020 운동

비전 2020운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화 된 통일 조국 건설을 목표로 2020년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군인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며 진중 세례식을 통해 매년 22만 명의 장병이 복음화 되도록 하고, 민족 복음화와 세계선교에 기여하여 복음화 된 통일 조국을 이룩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2020년까지 전 국민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할 때 그 75%인 3,700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96년 군 복음화 협의회의 비전 2020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 교회는 비전 2020 운동의 신학적 입장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다.

98년 기존의 우리 교회 전도 운동이던 비전 2000 운동은 군 복음화 협의회의 비전 2020운동과 함께 전개되면서 그 명칭이 비전 2020 운동으로 개칭되었다.

그러다가 이듬해 다시 비전 2020 운동본부와 분리되어 사명자 대회(비전 2000운동)라는 명칭의 전도운동으로 전개되었다.

99년 연중 전도운동을 위해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하며 사명자 대회와 분리된 서울교회 비전 2020운동본부는 우

리 교회의 군 선교를 주관하며 군복음화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파견한 군선교사(우리 교회 출석교인으로 군입대하신 성도)가 근무하는 군부대에 사랑의 온차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군에 입대하신 성도들과 우리 교회 환내에 주소를 둔 미래 교인(군 입대 후 진중세례 받은 장정)에게 사랑의 편지(매월 서신, 주보, 순례자, 책자 등)를 보내어 사랑의 편지를 주고받던 장정이 전역하여 우리 교회 대학부 예배에 참여하는 결실을 맺기도 하였다. 아울러 사랑의 전도를 위해 미래교인 가족을 심방하여 전도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사랑의 기도운동을 위해 비전 2020 실천운동 중보기도 사역자를 모집하여 미래교인이 전역하여 우리교회에 등록하기까지, 내 자식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관리하고 있다.

우리 서울교회는 만민에게 전도하라는 복음증거의 사명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교회다.

그 일환의 하나로 전개되고 있는 비전 2020 운동은 실제 한국교회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군선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비전 2020 운동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시환 (편집부)

동정

- 이종운 목사는 6일(목)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석하고 7일(금)에는 군선교 신학 실행위원회를 소집한다.
- 박정선 집사(4교구)는 지난 1월26일자로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고 찬양대 양성반을 맡게 된다.
- 11교구, 원용규 집사, 박이선 집사, 송파구 신천동 17-6 미성 A, 7/1007 전화:424-3690
- 금주의 식사: 손태기 집사, 박우옥 권사 가정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8시 10분 ~ 8시4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개인, 가정, 교회되도록
2.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도록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입시생,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북한의 핵 문제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